

Saul Bellow의 소설에 나타난 신비주의*

— *Dangling Man*과 *The Victim*을 중심으로 —

양 경 주**

목 차

- | |
|------------------------------------|
| I. 서 론 |
| II. 이성의 감옥 : <i>Dangling Man</i> |
| III. 고착관념의 희생자 : <i>The Victim</i> |
| IV. 결 론 |

I. 서 론

Saul Bellow의 소설을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움직임은 아직도 그 연구 결과가 단행본으로 출판될 정도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나, 1970년대 중반에서부터 소수의 비평가들에 의한 몇몇 단편 논문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고, *Mr. Sammler's Planet*과 *Humboldt's Gift*가 나오게 되자, 특히 John W. Aldridge는 Bellow가 *Mr. Sammler's Planet*에서 점차 신비주의로 다가서고 있으며, *Humboldt's Gift*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보는 관점이 신비주의적이 되었고, *Citrine*은 신비주의적 성향의 인물로 우주적 깨달음을 회귀한다고 말하여¹⁾ Bellow의 후기 작품들이 신비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이들과는 달리 또 다른 한편에서 일군의 비평가들은 Bellow 소설의 신비주의적 성격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인간 긍정"이라는 Bellow 소설의 주요 주제를 신비주의 세계의 일부를 이루는 초월주의와 종교적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Bellow소설의 신비주의적 일면을 단편적으로나마 드러내고 있다. Glorina L. Cronin과 L. H. Goldman은 이러한 경향을 지적하여, Bellow의

* 본 논문은 1992학년도 대학 국비 해외 파견 학술 연구 기금으로 작성한 것임.

**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Dept.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1) John W. Aldridge, "Saul Bellow at 60 : A Turn to the Mystical," *Critical Essays on Saul Bellow* ed. Stanley Trachtenberg(Boston, Massachusetts : G. K. Hall & Co., 1979), pp. 51-53.

인간 긍정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초월적이며 종교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John J. Clayton, Keith Michael Opdahl, Tony Tanner, Scheer-Schäzler, M. Gilbert Porter 등에 의하여 1970년대 초반에 이미 형성되었으며, 이들은 직관과 이성적 지성을 넘어선 깨달음에 대한 Bellow의 믿음, 즉 잠재적 인간성에 대한 긍정이라는 초월성에 몰두했다고 말하였다.²⁾ 특히 Nathan A. Scott, Jr.는 *The Adventures of Augie March*에서 Augie가 추구하는 “삶의 축선(the axial lines of life)”³⁾을 통하여 Bellow의 세계를 보는 안목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것은 인간 현실을 종교적 시각(religious perspective)에서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하여⁴⁾ Bellow 소설의 종교적인 면을 부각시켰고, 근래에 이르러서 Ellen Pifer는 종교를 인간이 신과 관계를 맺는 것(being bound to God)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 Bellow가 이 세상을 보는 태도가 종교적임을 밝히고, 지금까지는 Bellow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이러한 종교적 관점이 간과되거나 무시되어 왔음을 지적하면서 작품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 있다.⁵⁾ 사실, 신비주의는 그 개념이 포괄적이고 애매 모호하며, 또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학문적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더구나 Bellow는 많은 비평가들이 그를 “미국의 가장 지성적 작가”라고 부르고 있듯이⁶⁾ 수많은 사상가들이나 학자들 그리고 그들의 학문적 또는 지적인 문제를 소설의 소재로 다루고 있고, 또 그의 소설은 여러 신비주의 유파의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신비 체험, 즉 궁극적 실재(an Ultimate Reality), 또는 궁극적 존재(an Absolute Being)와의 합일의 세계나 체험을 극명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서, 일견 Bellow 소설의 신비주의는 그 색체가 두드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작해야 초월주의나 종교적인 태도 속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파편과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의 소설에 있어서 신비주의가 지엽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소설의 표면에 드러난 양상에 불과하다. 일단, 그의 소설의 인식론상에 나타나는 신비주의적 태도나 “인간 긍정”이라는 소설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신비주의적 인간관, 그리고 궁극적 실재와의 합일을 보여 주는 신비주의적 이미지나, 기타 여러 가지 신비주의 사상을 검토하게 되면, 신비주의가 그의 소설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고, 또 John W. Aldridge가 언급한 것처럼 Bellow가 *Mr. Sammler's Planet*에 이르러서 신비주의로 경도된 것이 아니라, 이미 초기 소설, *Dangling Man*과 *The Victim*에서부터 신비주의가 배태되어 성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Bellow의 소설에 나타나는 신비주의와 관련된 문제들을 검토하되 그의 소설의 방

2) Glorina L. Cronin and L. H. Goldman, *Saul Bellow in the 1980s: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ast Lansing, Michigan: Michigan State University, 1989), pp. 3-4.

3) Saul Bellow, *The Adventures of Augie March* (Greenwich, Conn.: Fawcett Publication, Inc., 1967), p. 472.

4) Nathan A. Scott, Jr., *3 American Moralists: Mailer, Bellow, Trilling* (Notre Dame and Londo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3), pp. 122-23.

5) Ellen Pifer, *Saul Bellow: Against the Grai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0), pp. 6-9.

6) Alvin H. Rosenfeld, "Saul Bellow, On the Soul," *Midstream: A Monthly Jewish Review* Vol. XXIII No. 10 (December, 1977), p. 47.

대함 때문에 편의상 우선 두 편의 초기 소설, *Dangling Man*과 *The Victim*을 중심으로 특히 그의 소설에 나타나는 신비주의적 양상중의 하나인 실재(reality)와 그에 대한 인식상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코자 한다.

II. 이성의 감옥 : *Dangling Man*

Bellow의 첫 소설 *Dangling Man*의 주인공 Joseph은 Marcus Klein이 지적한 바 있듯이 소외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이며⁷⁾, 소외의 원인은 마치 그가 용소 대기 상태에 처해 있어서 직장으로 복귀하여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입대할 수도 없는 엉거주춤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그는 친구들이나 친척들과는 물론이고, 형 Amos와도 완전히 소원해져 있고 접촉을 기피하며, 아내 Iva와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대화의 단절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일기를 씌으로써 일기 속의 “나”와 겨우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그는 하루 열 시간을 마치 “의자에 뿌리를 내린듯이” 조그마한 전셋방에 틀어박혀 방 밖으로 나가는 일이 별로 없다. 이제 그는 심한 고독감 속에서 점차 의기소침해지고 타락하여, 분한 마음(spite)과 쓰라린 마음(bitterness)이 자신의 선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마치 산처럼(like acids)” 과묵어 들어가고 있음을 느끼며, 이러한 고독감에 사로 잡혀 일상 생활 속의 자질구레한 일들, 이틀테면 하숙집 일을 돌보는 청소부의 녹크 소리나 우체부의 방문 그리고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번민에 찬 생각들에 마음을 쓰며 나태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Joseph의 이러한 소외와 고뇌는 입대도 할 수 없고 직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엉거주춤한” 상황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일곱 달 동안의 징집 연기가 자신의 번민에 대한 단 한 가지 원인에 지나지 않는다(But the seven months' delay is only one of the sources of my harassment.)”⁸⁾고 말하고 있고, 또 그의 지금과 같은 불안과 번민이 시작된 것은 부끄럽게도 하숙집 주인이었던 Gesell씨와 주먹다짐을 하여 이사를 가게 되었던 지금으로부터 일년 전인 지난 겨울부터였으며 (“My [Joseph's] present ill temper first manifested itself last winter. Before we moved out of our flat I had a disgraceful fist-fight with the landlord, Mr Gesell.”) (*DM*, 118), 그것이 현재와 같은 자신의 불쾌감의 초기 증상이었다(“This was ‘not like’ me : it was an early symptom. The old Joseph was inclined to be even-tempered.”) (*DM*, 121)고 말하고 있다. 이는 그의 소외와 고뇌가 징집 연기에 의하여 야기된 상황 때문에 일어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소외와 고뇌가 징집 연기가 되기 훨씬 이전의 사건들에 기인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7) Marcus Klein, *After Alienation : American Novels in Mid-Century*, (Cleveland and New York :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64), p. 16.

8) Saul Bellow, *Dangling Man* (Penguin Books, 1944), p. 10. 이하 이 책의 인용은 *DM*과 함께 페이지만을 인용 어구의 끝에 표기하기로 함.

만약 이 소설의 중심 상황이 되고 있는 주인공 Joseph의 소외와 고뇌가 징집 연기 이전의 여러 사건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가 징집 유보 상황에서 일으키고 있는 여러 사건들과 함께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의 동기와 그 동기 속에 들어 있는 그의 욕구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또 어떻게 좌절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더듬어 봄으로써 그가 현재 처해 있는 소외와 번민의 원인과 함께 그의 성격은 물론 이 소설이 전하려는 주제적 의미까지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Joseph가 자의식이 형성되는 10대 후반에서부터 27세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온 일련의 행위를 검토해 보면, 그는 인간과 그 삶에 대한 탐구와 해명을 하려는 커다란 야심에 찬 욕구를 갖고 있고, 그 욕구는 계속하여 좌절에 봉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는 17세 때 이미 공산주의자가 되어 독일의 사회주의와 그 슬로건인 “하부로부터의 연합 전선(United Front from Below)”에 대하여 꽤 전문적인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며, Marx의 이론에 따라 이 세계를 개혁하려는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하게 된다. 그의 이 공산주의 운동은 Marx의 이론이야말로 이 혼란스런 인간의 삶을 명쾌하게 해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그것은 그러한 인간의 삶을 Marx의 이론으로 명쾌하게 해석해 보려는 그의 욕구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없어 공산 혁명은 하나의 망상이며, 결국 공산주의 운동은 전체 정치에 협력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Marx의 이론에 의한 인간과 삶에 대한 해명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곧 공산주의 운동과 결별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인간과 삶을 해석하려 했던 그의 욕구가 사그라든 것은 아니었다. 그는 공산주의 이론 대신에 여러 사상가들의 이론에 의지하여 인간과 세계를 해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게 된다.

그는 Wisconsin 대학 재학시에도 역사를 전공하고 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언제나 스스로 한 사람의 학자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Joseph, since leaving school, has not stopped thinking of himself as a scholar....)” (DM, 23), 계속 책더미에 묻혀 살면서 최근에는 계몽주의 사상가들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다. 그가 졸업 후 그의 형 Amos가 추천하는 좋은 직장도 마다하고 최하급의 일자리로 생각되는 “미국 국내 여행사”에 말단 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된 것도 연구를 계속하려는 그의 욕구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생활비를 번다는 일과 그의 연구를 계속한다는 양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하급의 직장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했던 것이다. 그는 또한 이 두 가지 욕구 사이에 균형을 취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자신의 수완과 자신감에 긍지를 느낀다.

Joseph은 일년 전까지는 계몽주의 사상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초기 금욕주의 자들에 대한 연구에 몰두해 왔고, 또 그 이전에는 낭만주의와 “신동(the child prodigy)”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일에 열중했었다. 그래서 그는 사회인으로서도 군인으로서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거부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기회를 이용하여 일년 전에 Diderot에 대하여 쓰다가 중단되었던 주로 전기적인(biographical) 관점에서 계몽주의 철학자들을 다룬 소논문들을 다시 쓰기 시작하려고 한다.

이처럼 그는 인간에 대한 탐구와 해명을 절대 과제로 삼고 있는 인물이며, 그가 계몽주의 사상과 낭만주의에 대하여 그의 관심을 갖고 심취하고 있음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그는 인간과 삶의 실재(reality)를 인간의 이성(reason)에 의지하여 파악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성주의자이다. 또한 그는 이성주의자로서 이성에 의하여 관념적으로 파악된 이상적 인간상, 즉 인간의 고귀함을 믿고 있는 이상주의자이기도 하다. 이상주의자로서 그는 인간을 “천사들의 머리가 모자란 어린 아이들, (the feeble-minded children of angels)” (DM, 114)로 보고, 인간의 선함과 고귀함을 애써 믿으려 한다. 그는 선(goodness)보다는 악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혼란스런 현실과, 인간의 왜소함과 삶의 무의미함을 설파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선량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는 무엇을 해야 마땅한가?(How should a good man live: What ought he to do?)” (DM, 32)하는 문제에 사로 잡히게 되고, 또 “어디엔가 아니면 과거에라도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어디에 있었는가하는 변함 없는 질문(the invariable question: Where was there a particle of what, elsewhere, or in the past, had spoken in man's favor?)” (DM, 20)을 던지는 것을 자신의 고통에 찬 의무로 여기며, 이러한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인간이 고귀해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다는 그의 이상주의적 신념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이 세계가 선과 악 양면이 있는 혼란스런 세계이고, Hobbes의 말대로 이제는 이 세계가 점차 야만스럽고 위협에 찬 곳이 되어가고 있어서, 이 야만성과 위협성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존재는 “불결하고 야수적이며 단기적인(nasty, brutish, and short)” 것이 될지도 모르지만 (DM, 32), 그러한 상황은 “하나의 계획(a plan)”에 의하여 개선이 가능하며, 인간은 이성적 능력에 의하여 “완전한 인간(a whole man)” (DM, 55)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는 현실을 통하여 드러나는 저열하고 추악해 보이는 인간과 삶의 모습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을 비롯하여 Iva는 물론 그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계획”의 통제하에 두고 관리함으로써 “관념적 구성”에 의하여 파악된 이상적 인간상인 “완전한 인간”을 실현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

그러나 인간과 삶을 관념화하여 논리적으로 파악하려 했던 Joseph의 야심에 찬 시도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그것은 실현이 불가능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선, 그는 지난 7, 8년 동안 “전반적 계획(general plan)” (DM, 23)에 입각하여 자신의 행동을 규제해 왔으며, Iva를 그의 계획하에 통제하여 그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여성들, 이를테면 “Burkhardt가 그린 르네상스 시대의 귀부인들”이나 “Augustus 시대의 겸손한 여인들”과 같은 여성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그리고 친구와 이웃들에게는 이 세계가 야만스럽고 위협에 찬 곳이라 하더라도 서로 힘을 합쳐 위협과 야만에 대항하여 자신을 지키려고 할 때 이 세계가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신념하에 “그 규약이 원한이나 유혈 그리고 잔인함을 금하는 집단인 정신의 조계(‘a colony of the spirit’, or a group whose covenants forbade spite, bloodiness, and cruelty)” (DM, 32)를 구하게 된다.

그의 좌절은 먼저 친구들에게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지난 3월 Servatius씨댁 파티에 초대받아

Iva와 함께 가게 된다. 거기에서 그는 친구인 Abt가 Minna에게 최면을 걸어놓고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복수심과 잔인함을 보게 되자 “정신의 조계”를 기대했던 친구들에게도 그가 외면할 수 없는 악성이 잠재해 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다. 그는 이미 “진실을 보아버렸음(I [Joseph] had hit upon the truth)” (DM, 47)과 그 진실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 파티에서 있었던 사건들은 그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된다. 그는 악몽에 시달리는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 후 몇달 동안 그 때까지 쌓아 올렸던 것들의 취약성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일들은 그로 하여금 “관념적 구성”에 의하여 인간과 삶을 파악하고 “계획”에 의하여 개혁하려는 그의 이성주의적이며 동시에 이상주의적인 인간관이 인간의 실상과 괴리되어 있는 하나의 허상에 지나지 않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또한 그의 고뇌와 번민 그리고 소외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계획” 자체는 경멸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한 계획의 필요성만은 결코 경멸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고수한다.

This [an uneasy, dream-ridden night] was only the beginning. In the months that followed I began to discover one weakness after another in all I had built up around me... It would be difficult for anyone else to know how this affected me, since no one could understand as well as I the nature of my plan, its rigidity, the extent to which I depended on it. Foolish or not, it had answered my need. The plan could be despised; my need could not be. (DM, 47)

Iva도 그의 “계획”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Joseph은 지난 10년 동안 그녀를 이상적 여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녀에게 Jacob Boehme를 읽도록 하고 *Walden*의 내용을 가르쳐 주곤 했었다. 그러나 그녀도 지난 수년 동안은 완전히 그의 통제하에 있었지만 조금씩 반항할 만한 힘이 생겨나서, 이제는 그녀가 Servatius씨 댁 파티에서 행동으로 보여 주었던 것처럼 그녀도 그의 “계획”과 통제를 분명하게 회피하고 있고, 그의 이상에 따라 이상적 여성으로 형성되기를 거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무엇보다도 Joseph이 좌절을 절감하게 되는 것은 그 자신 또한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성적이며 이상주의적 존재, 즉 그가 “관념적 구성”에 의하여 세워 놓은 “완전한 존재”가 결코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데서 생겨나고 있다. 그는 인간을 이성에 따라 해명하려고 노력하는 자이지만, 그 자신 스스로도 의식적으로 “이성적임”을 자처하는 인물이다(DM, 112). 그런데 그는 일년 전 옛 하숙집 주인이었던 Gesell씨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고, 그 후 공산주의 운동을 할 때 동지였던 Jimmy Burns와 마음의 착란 상태에서 분별력을 잃고 대소동을 벌이게 된다. 그 뿐만이 아니다. 그는 레코드 사용 문제 때문에 조카인 Etta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자신의 두 다리 사이에 그녀의 두 다리를 끼워넣은 채 손으로 볼기를 때리는 소동을 일으키는가 하면, 같은 하숙집에 세들어 사는 Vanaker씨와 화장실에서 소동을 일으키고는 징병 위원회로 달려가서 소집 청원을 하고 있다. 또한 그는 형수인 Dolly와 조카인 Etta에 대하여 무의식적으로 품고

있었던 성적(sexual) 충동을 의식하고, 더구나 Kitty Daumler와의 정사 관계(sexual affair)를 통하여 자신의 내부에도 끝없이 탐욕이 타오르고 있음을 인정치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성주의자로서의 Joseph은 이처럼 인간에 대한 인식 원리로서 그리고 현실에 대한 개혁의 수단으로서 이성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있음에도 그는 결코 이성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But towards morning I have a way, also, of holding court on myself... Half-conscious, I call in a variety of testimony on my case and am confronted by the wrongs, errors, lies, disgraces, and fears of a lifetime. I am forced to pass judgement on myself and to ask questions... : 'What is this for?' and 'What am I for?' and 'Am I made for this?' My beliefs are inadequate, they do not guard me. I think invariably of the awning of the store on the corner. It gives as much protection against rain and wind as my beliefs give against the chaos I am forced to face. (DM, pp. 101-102)

그는 그가 목표로 하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힘이 없고, 또 의지를 통어하지도 못한다고 생각하여 의지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힘의 원천으로서 신(God)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그는 신에 의지하는 것은 낙담과 혼란과 육체상의 급박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만을 바랄 뿐 치료 방법을 묻지 않는 것과 같이 “비참하게 항복하는 것(a miserable surrender)” (DM, 56)과 다르지 않다고 여긴다. 그는 결코 “신은 아니다(not, God, not any divinity)”라고 선언한다. 그는 공포감 때문에 “어떤 고안 장치(any contrivance)”에 매달리고 싶지 않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범죄행위라고 여긴다. 그래서 “그는 힘이 도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또 항복하는 편이 오히려 유리함에도 이성에 승소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Out of my own strength it was necessary for me [Joseph] to return the verdict for reason, in its partial inadequacy, and against the advantages of its surrender.)” (DM, 56)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성주의자로서의 Joseph의 진면목을 보게 되며, 그 모습은 Irving Malin이 *Dangling Man*에 나타난 “감옥(a prison)”의 이미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듯이

Thus Bellow's characters consider themselves imprisoned. In *Dangling Man* Joseph is locked in his room, rarely leaving it. The boarding house, itself, is a prison for the inhabitants — for him, Vanaker, and the landlady. The mental environment is also a prison : Joseph tries to keep himself “intact,” shut-up⁹⁾

“이성의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는 Joseph 자신도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다.

9) Irving Malin, *Saul Bellow's Fiction* (Carbondale and Edwardsville :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69), pp. 98-99.

I have this sixed-box... I, in this room, separate, alienated, distrustful, find in my purpose not an open world, but a closed, hopeless jail. My perspectives end in the walls. (DM, 75)

그러나 Joseph는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이성의 감옥”에 유폐시킨 채 이성애에 집착하고 있지만, 그는 실제의 인식 능력으로서의 이성의 한계와 “관념적 구성”이니 “계획”이니 하는 것들의 허구성을 이미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우선 그는 그의 “또 다른 나(other self)”인 “양자 택일의 정신(the Spirit of Alternatives)”과의 대화에서 “관념적 구성”이 “혼란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길(the only way to meet chaos)” (DM, 116) 이기는 하지만 “계획”은 하나의 고착 관념(an obsession)” (DM, 115)이며, “관념적 구성”은 “하나의 고착 관념에 사로잡힌 책략(an obsessive device)”으로서 “실재 세계, 즉 진실(the real world, the truth)”과는 괴리되어 있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DM, 116). 그래서 그는 “계획”이니 “이상화(idealizations)”니 하는 것들은 기생충처럼 우리를 소모시키고,

These [our plans, idealizations] are dangerous, too. They can consume us like parasites, eat us, and leave us lifelessly prostrate. And yet we are always inviting the parasite, as if we were eager to be drained and eaten. (DM, 73)

또 “고착 관념은 인간을 소멸케 하며, 그것은 인간의 적이 될 수도 있으며, 종종 적이 되고 있음 (‘Then there’s this : the obsession exhausts the man. It can become his enemy. It often does.’)” (DM, 116)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관념적 구성”이 현실의 혼란에 대처케 해 줄지는 모르나 그것은 결국 삶의 실재를 밝히는 작업이 아니라 삶의 진실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 즉 John J. Clayton의 표현을 빌자면, “관념적 구성”은 “가공의 실재(created reality)”¹⁰⁾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의 중심 상황인 소외와 좌절의 상황, 즉 “허공에 매달린(dangling)” 상황은 바로 Joseph의 이러한 자세, 다시 말하면 실재에 대한 인간의 인식 능력이자 원리로서의 이성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면 느낄수록 자신을 이성의 절대성 속에 유폐시킴으로써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마침내 인간을 “관념적 구성”으로 파악하고 “계획”에 의하여 실현하려 했던 Joseph가 그것들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죽음”이라는 장벽에 맞닥뜨리게 됨으로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바로 이 죽음이 그에게 충격을 가하여 그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유폐시켰던 “이성의 감옥”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Joseph는 Eusebio L. Rodrigues가 “Joseph의 죽음에 대한 강박 관념이 *Dangling Man* 전체에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It is Joseph’s obsession with death that comes through quite powerfully in

10) John J. Clayton, *Saul Bellow: In Defense of Man* (Bloomington and London : Indiana University Press, 1979), p. 78.

Dangling Man...)”¹¹⁾고 말하고 있듯이 언제나 죽음을 의식하고 그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어릴 적부터 거실 테이블에 있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고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으로 예감하고 죽음을 의식하며 자란다.

In a drawer of the parlour table where the family pictures were kept, there was one to which I was attracted from earliest childhood. It was a study of my grandfather, my mother's father, made shortly before his death. It showed him supporting his head on a withered fist, his streaming beard yellow, sulphurous, his eyes staring and his clothing shroud-like. I had grown up with it. And then one day, when I was about fourteen, I happened to take it out of the drawer together with the envelope in which my curls had been preserved. Then, studying the picture, it occurred to me that this skull of my grandfather's would in time overtake me, curls, Buster Brown, and all. Still later I came to believe... that the picture was a proof of my mortality. I was upright on my grandfather's bones and the bones of those before him in a temporary loan. But he himself, not the further past, hung over. Through the years he would reclaim me bit by bit, till my own fists withered and my eyes stared. (*DM*, 62)

그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임은 그가 여섯번째 결혼 기념일을 맞아 Iva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약속 장소로 가는 도중에 손발을 앞으로 뻗은 채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나이를 발견하고는 그 사나이의 모습에서 자신의 죽음을 연상하여 자신에게도 저런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To many in the fascinated crowd the figure of the man on the ground must have been what it was to me — a prevision. Without warning, down. A stone, a girder, a bullet flashes against the head, the bone gives like glass from a cheap kiln: or a subtler enemy escapes the bonds of years: the blackness comes down: we lie, a great weight on our faces, straining towards the last breath which comes like the gritting of gravel under a heavy tread. (*DM*, 95-96)

그는 이 사나이의 모습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그가 어디 아픈게 아닐까 하고 Iva가 생각할 정도로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만다.

죽음에 대한 Joseph의 강박관념은 그 어디에서보다도 Freud가 인간의 내면 무의식의 세계를 가장 적절하게 보여 주는 정신 심리학적 현상이 꿈이라고 말하고 있듯이¹²⁾, 바로 자신의 꿈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첫번째 꿈은 대량 학살된 유태인의 시체가 말구유나 유모차같은 것에 하나씩 담겨져 있는데 어떤 가족의 부탁을 받고서 시체를 인수하러 가는 꿈이다. 그는 꿈 속에서

11) Eusebio L. Rodrigues, *Quest for the Human: An Exploration of Saul Bellow's Fiction* (London and Toronto: Associated University Press, 1981), p. 27.

12) Keith M. Opdhal, *The Novels of Saul Bellow: An Introduction* (University Park and Lond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67), p. 123에서 재인용.

“Tanza”라는 지명을 생각해내고는 Constanza와 Bucharest에서 루마니아의 반유태 단체인 “철의 근위대(iron Guard)”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어 도살장의 쇠갈고리에 매달려 있었던 장면을 연상하게 된다. 또 그는 머리며 손발을 절린 어린애같은 얼굴을 한 시체와 그리고 그 시체 사이를 쥐새끼처럼 민첩하게 돌아다니는 안내자를 바라보며 아버지가 알려주었던 지옥의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더구나 이 꿈에서 안내자는 진창 바닥에 쓰러져 있던 사나이와 동일한 사람으로 나타나며, 결국에는 불쑥 나타나서 가차없이 인간을 “무(inexistence)” (DM, 101), 즉 죽음으로 데려가는 사나이로 나타난다. 또 하나의 꿈은 그가 공병(a sapper)이 되어 북아프리카로 파견된 꿈이다. 그의 부대가 어느 마을에 진주했는데 그는 어느 한 집에 장치되어 있는 수류탄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그는 권총을 수류탄에 조준하여 발사한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만약 명중했다라면 자신은 박살이 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이 두 꿈은 서로 연결되어 그가 자신의 뒤에는 언제나 죽음이 뒤따르고 있음을 늘 의식하고 있으며, 언제나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The moment is for him [the fallen man of last week who take you into inexistence] to choose. He may come at a climax of satisfaction or of evil; he may come as one comes to repair a radio or a faucet; mutely, or to pass the time of day, play a game of cards; or, with no preliminary, coloured with horrible anger, reaching out a muffling hand; or, in a mask of calm, hurry you to your last breath, drawn with a stuttering sigh out of his shadow.

How will it be? How? Falling a mile into the wrinkled sea? Or, as I have dreamed, cutting a wire? Or strafed in a river among chopped reeds and turning water, blood leaking through the cloth of the sleeves and shoulders? (DM, 101)

Joseph가 그렇게 죽음을 의식하고 그것에 대하여 강박관념과 충격을 느끼고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만은 그의 인식 논리인 “관념적 구성”으로 대처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성주의자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 만약에 죽음에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기성 종교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거나, 신에 의지하여 죽음을 초월하는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Joseph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것은 기성 종교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 하나의 “관념적 구성”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을 통해서도 죽음이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시장 바구니에 “크리스찬 사이언스 문헌들(Christian Science literature)”을 가득 담고 다니며 신앙에 의지하여 죽음에서 자신을 구하도록 설파하는 50세에 가까운 부인을 통하여 보게 된다.

There is a woman who goes through the neighbourhood with a shopping-bag full of Christian Science literature. She stops young men and talks to them. Since we cover the same streets, I encounter her often, but she keeps forgetting me, and it is not always possible to avoid her.... If you stop, she takes out her tracts and begins to speak....

Her speech is memorized. I watch her chapped lips through which the words come, so dry and rapid, often pronounced as though she did not understand them. The words, the words trip her fervour. She says she has talked to many young men who are about to go to war, who are going to face destruction. Her duty is to tell them that the means of saving themselves is at hand if they want it. Nothing but belief can save them. She has spoken to many others who have come back from the jungles and the fox-holes, surviving the maiming fire only because of their faith. The doctrines of the science are not superstitions but true science, as has been proved. She has a pamphlet of testimonials, written by soldiers who know how to believe....

Yesterday she was sicker than ever. Her skin was the colour of brick dust; her breath was sour. In her old tam that half-covered the scar, and her rough, blackened coat buttoned to the neck, she suggested the figure of a minor political leader in exile, unwelcome, shabby, buring with a double fever. (DM, 133-34)

이제 그에게는 이성도 신앙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을 포기하는 길만이 남아 있다. 그는 마침내 이 선택의 포기를 받아들이고,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나는 그 점을 감사히 여긴다. 나는 이제 남의 손에 맡겨졌다. 스스로의 결정 책임도 면제되었으며, 자유도 버렸다(I am no longer to be held accountable for myself :I am grateful for that. I am in other hands, relieved of self-determination, freedom cancelled.)” (DM, 159)고 선언하고 있다. 이 선택의 포기는 결국 이성주의자인 그에게는 이성의 포기를 의미하며, 그가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이성의 감옥의 무너짐을 뜻한다. 동시에 그것은 그가 이성을 가지고 인간과 사물을 해명하려고 도전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의 말대로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비참한 항복(a miserable surrender)” (DM, 56)이 되고 있고, 그가 이성의 힘을 믿고 “비정파(hardboiled-dom)”의 허무 극복 방법으로서의 행동주의에 반기를 들고 도전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이성에 의한 허무 극복이 실패로 끝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하겠다. 또한 Joseph의 선택의 포기는 그가 “영위된 삶이란 기대를 의미하며, 죽음이란 선택의 포기로서, 선택이 제한을 받을 수록 죽음에 가까워진다(Continued life means expectation. Death is the abolition of choice. The more choice is limited, the closer we are to death.)” (DM, 122)고 믿고 있는 인물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 또는 “죽음의 수용”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 선택의 포기는 인간과 삶에 대한 탐구라는 Bellow 소설의 주제적 발전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은 Joseph의 선택의 포기가 그의 실패와 좌절, 즉 인간과 삶에 대한 이성적 인식의 불가능함에 따른 좌절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어서 인식 수단으로서의 “이성의 포기”를 의미할 뿐이며, 또 새로운 접근 수단을 찾아낼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보된 것이어서 인간과 삶에 대한 실재의 탐구 그 자체의 포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선택의 포기에는 새로운 자각이 선행되고 있어서 Bellow 소설의 주인공들이 앞으로 취하게 될 새로운 선택 대상의 성격이 그러한 자각속에 배태되고 있기 때문이다.

Joseph은 “이 새로운 선택”을 위한 그의 자각이 지난 일년 동안 번민과 소외 속에서 이르게

되는 그의 깨달음, 즉 “인간과 삶에 대한 이성적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깨달음에 수반되고 있고, 또 그 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그의 이러한 깨달음을 그가 “선택의 포기”를 선언하기에 바로 앞서서 “상식의 대상물에도 바로 상식과 배반되는 요소가 들어 있다(There was an element of treason to common sense in the very objects of common sense.) (DM, 158)는 한마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은 만물에는 이성을 넘어서는 차원이 있으며, 따라서 인간과 삶도 그가 의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이론화하여 명쾌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Joseph가 만물에는 이성의 접근을 허용치 않는 세계가 존재함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이성적 접근을 가로 막고 있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Joseph의 자각과 이성의 포기, 그 속에서 우리는 Bellow 소설의 신비주의의 배아가 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Joseph의 자각과 이성의 포기는 현상을 넘어선 실재의 세계를 주장하며 그 세계에 대한 접근 수단으로서 이성과 감각 경험을 배제하고 있는 신비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Bellow는 Joseph이 계몽 사상가나 Marx 등의 사회주의 사상가들과 함께 Jacob Boehme 등의 신비주의자들에게도 정통하고 있고, 또 본질 인식 수단으로서의 이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결국 신에 의지하는 길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면 Joseph는 Iva를 이상적 여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녀에게 *Walden*과 Jacob Boehme를 읽도록 하며, 그가 형 Amos를 찾아갔을 때도 그가 Etta에게 사주었던 음반(a record)을 찾아서 Haydn의 “첼로를 위한 희유곡(dibertimento)”이란 곡을 반복해서 듣는다. 그가 그 곡을 반복해서 혼자 듣고 있는 것은 그 곡이 “완전한 인간”이 되는 데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며 보편적인 것으로서 “신”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Joseph에게서 좌절당한 이성주의자의 패배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성에 대한 불신과 좌절의 결과로서 그에게 최후로 주어지는 허무주의와 신비주의라는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그는 존재의 무의미함을 주장하는 허무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이성을 넘어서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실재에 대한 신비주의적 탐색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긍정적 인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Ⅲ. 고착관념의 희생자 : *The Victim*

*The Victim*의 주인공 Asa Leventhal은 표면적으로는 Joseph처럼 인간과 삶에 대하여 그렇게 강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도 않고, 또 인간의 삶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의식적으로 탐구하려드는 인물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 소설이 다루고 있는 중심적인 문제도 표면적으로는 이 소설의 제사(epigraph)로 사용되고 있는 *Thousand and One Nights* 중의 “The Tales of the Trader and the Jini”가 보여 주듯이 “도덕상의 책임(moral responsibility)”이다. 즉, 이 소설은 제사(epigraph)에서 먼 길을 가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대추 야자를 먹고나서 씨를 내던진 한 상

인과, “네가 던진 대추야자 씨에 이 곳을 지나던 내 아들이 가슴에 맞아 죽었으니, 네 놈을 죽이겠다”고 칼을 휘두르며 상인 앞에 나타난 악귀(Ifrid)와의 관계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으로부터 “내가 직장을 잃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다”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Leventhal과 그러한 비난을 가하는 Allbee와의 관계로 대비시켜, 우리는 행동의 결과가 자신의 의도와 전혀 무관한 결과를 낳았을 때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The Victim*도 그 심층적인 문제는 *Dangling Man*에서처럼 “인간과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Leventhal은 Allbee와의 일련의 불가해한 사건과 그와의 상호 피해자이자 가해자로서의 대립 관계를 통하여 불가피하게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휘말려 들고 있으며, 그가 처하게 되는 이러한 부조리스러운 상황과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 소설의 “도덕상의 책임” 문제는 바로 *Dangling Man*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은 이성적·논리적 파악을 초월해 있는 것으로서 고착화된 관념의 틀에 의하여 파악되는 인생의 모습은 인생을 밝혀 주기보다 인생을 왜곡시켜 놓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의 중심상황이 되고 있고, 또 Leventhal로 하여금 인간과 삶의 문제에 얽혀들게 하는 그와 Allbee와의 대립 관계는 무엇보다도 그도 Joseph과 마찬가지로 딱 굳어진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그러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간과 삶을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파악하려는 데서 생겨나고 있다. 그가 Joseph과 다른 점이 있다면, Joseph이 인간과 삶을 계몽주의적 이상주의의 입장에서 파악하려 하고 있음에 비하여 그는 인간과 삶을 상당히 비관적 결정론의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Joseph이 인간 본성의 고귀함과 인간의 능력, 특히 이성적 능력을 믿고, 인간의 개선의 가능성을 철석같이 신봉했던 인물이라고 한다면, Leventhal은 그와는 반대로 인간의 삶이 고귀해질 가능성을 전혀 믿지 못하는 인물로서 이 세계의 움직임은 단지 “맹목적이고 거대한 움직임(all blind movement, vast movement)¹³⁾”이며, 인생은 “설 새도 없이 날마다 계속되는 투쟁(an unremitting daily fight)”이고, “모든 것은 난장판이고, 우연적이며, 되는 대로이다 (It was a shuffle, all, all accidental and haphazard.)” (V, 248)라고 여기는 인물이다.

Leventhal은 이러한 삶에 대한 태도는 돈밖에 모르고 살았으면서도 가난뱅이로 이 세상을 떠나야 했던, 다시 말하면, 돈만이 자신의 생존을 지켜 줄 것으로 믿고, 입버릇처럼 돈을 이야기하던 그의 아버지와의 유년 시절의 삶과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주린 배를 움켜잡고 전전해야 했던 “이스트 사이드(the East Side)”의 더러운 싸구려 아파트 생활과 인생의 실패자들, 갈 바를 잃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생의 낙오자가 될 뻔 했던, 결코 잊을 수 없는 남부 “브로드웨이”의 생활 경험, 그리고 “후에도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언제나 얼굴이

13) Saul Bellow, *The Victim* (New York, N.Y.: The American Library, Inc., 1947), p. 68. 이하 이 책의 인용은 V와 함께 페이지만을 인용 어구의 끝에 표기하기로 함.

달아오르고 움찔거리게 되는 '볼티모어'에서의 생활 체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그는 이러한 세계관 때문에 극도로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사회적인 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본능적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되며,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그 자신에게 공격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믿게 된다. 그가 끊임없이 벨 소리나 여러 가지 소음,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대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며, 심리적으로 신경 과민 상태에 놓여 있는 것도 외부 세계에 대한 그의 피해 의식과 그에 대한 방어 태세를 보여 주는 것이다.

"No, the bell rang." Leventhal said positively; he looked seriously at the superintendent. "Was it the dumb-waiter bell, you think?"

"If somebody was fooling around the basement. I didn't touch it tonight."

....Perhaps it was a radio, though he did not think so. Perhaps something in the wiring, affected by the heat... or the dumb-waiter. What really concerned him was that perhaps his nerves were to blame and that he had imagined the ring just as he had imagined that he had slept... He kept the bathroom light burning all night. Somewhat ashamed of himself, he had yesterday closed the bathroom door before getting into bed, but he had left the light on. This was absurd, this feeling that he was threatened by something while he slept... He imagined that he saw mice darting along the walls... He had no dread of them, and yet he had begun to jerk his head around at the suspicion of a movement. And now he had been unable to fall asleep. (V, 30-31)

Leventhal의 이러한 비관주의적이고 결정론적인 세계관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암울하고 숨막힐듯한 인간의 모습과 분위기는 De Quincey의 「아편의 고통」(*The Pains of Opium*)에서 인용된 소설의 두번째의 제사(epigraph)에서 "소용돌이 치는 태양의 파도 속에 들끓는 모습으로 나타나 는 몇 만, 몇 천, 몇 세대의 애원하는 얼굴, 분노의 얼굴, 절망의 얼굴을 통하여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소설의 첫 장면에서 부터 시작되어 소설의 중심 분위기를 이루고 있다.

ON SOME NIGHTS, New York is as hot as Bangkok. The whole continent seems to have moved from its place and slid nearer the equator, the bitter gray Atlantic to have become green and tropical, and the people, thronging the streets, barbaric fellahin among the stupendous monuments of their mystery, the lights of which, a dazing profusion, climb upward endlessly into the heat of the sky. (V, 11)

이 소설 속에서는 나무들을 보더라도 시원한 미풍이나 아름다운 풍경을 가져다 주는 고목이나 수풀들은 찾아 볼 수 없다. 이 소설 속의 나무들은 숨막히는 열기 속에서 먼지에 잠겨 있는 나무들이며, 인간에게 꿈을 심어 주는 별들도 찌는 듯한 밤하늘의 어둠을 뚫고서 희미하게 드문 드문 보일 뿐이다.

Bellow가 이 소설의 주요 사건들을 주로 무더운 여름 밤에 일어나도록 처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의도에서이겠지만, 설사 낮장면이 묘사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고층

건물들이 커다랗게 한 덩어리가 되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 보잘것 없는 조그마한 인간을 위압하며, 찌는 듯한 태양 아래서 이글 이글 타고 있다. 고층 건물과 수면을 스치는 광선들도 소름끼치게 하는 “사자와 같은 야수들이 가늘게 뜬 눈속에 나타나는 그런 노란 색(the yellow revealed in the slit of the eye of a wild animal, say a lion)” (V, 52)으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인간으로서의 위엄을 상실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소설의 사건이 일어나는 광장마다, 오솔길마다 어디를 보아도 아무 목적없이 들끓는 인파들이 계속 나타난다. 맨팔을 내놓고 짝을 진 젊은이들이 멍하니 서 있는가 하면, 출산이 머지않은 임산부가 부른 배를 앞으로 툭 내밀고 인파 속을 어슬렁 어슬렁 걷고 있다. Leventhal에게는 이들이 서로 밀고 엇갈리고 하는 인파의 모습이 마치 이 소설의 두번째 제사(epigraph)가 보여 주는 그러한 세계 속의 인간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There was an overwhelming human closeness and thickness, and Leventhal was penetrated by a sense not merely of the crowd in this park but of innumerable millions, crossing, touching, pressing. What was that story he had once read about Hell cracking open on account of the rage of the god of the sea, and the soul, crammed together, looking out? (V, 163-64)

Leventhal은 자신에게 위압적 공격성과 비인간적 맹목성을 띠고 있는 이 세계와 얽혀드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여 몸을 움추리며, 이러한 세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철저하게 “냉담함(impassiveness)”과 “무관심(indifference)” (V, 20)이라는 태도를 견지하려고 애를 쓴다. 그는 그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닫아버리는 것, 즉 냉담과 무관심만이 이 위협적인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if you shut yourself up, not wanting be bothered, then you were like a bear in a winter hole, or like a mirror wrapped in a piece of flannel. And like such a mirror you were in less danger of being broken, but you didn't flash, either. (V, 92)

그는 또한 자신이 타인과의 골치 아픈 일에 말려들지 않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제외하고 누구에게나 “무관심”과 “냉담”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심지어는 그의 어린 조카 Philip에게까지 그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마비에 가까운 무관심 상태에 빠지게 된다(He [is] in a state of indifference akin to numbness.)” (V, 164).

Leventhal은 자신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냉담”과 “무관심”이라는 태도와 함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태도를 그 수단으로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그의 냉담함과 무관심함이라는 태도 밑바닥에는 이성과 논리로 무장되어 있다. 이를 Robert R. Dutton도 “Asa의 이론적 설명이 매우 논리적이다(Asa's rationale is in quite logical.)”¹⁴⁾라고 하고 있는데, 이처

14) Robert R. Dutton. *Saul Bellow* (Boston : Twayne Publishers, 1982). p. 39.

럼 Leventhal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세계의 위협에 대하여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방어하려는 사고 방식의 인물이 되고 있음은 유태인인 그가 오히려 “와스프(Wasp)”들에게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어서 “와스프”인 Allbee에게 그가 피해를 주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해명하여, 그 자신 때문에 실직을 당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Allbee의 주장이 터무니 없음을 밝히려려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Leventhal의 결정론적이며 이성주의적인 세계관은 이상주의적이며 이성주의적인 세계관이 Joseph에게 그러하였듯이 Leventhal에게 인간과 삶의 실상을 가로 막는 장벽이 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Joseph에게 그러하였듯이 그에게도 “관념적 구성(an ideal construction)”이 되고 있어서 그러한 세계관에 의하여 파악된 세계는 삶의 실재가 아니라 “가공의 실재(created reality)”가 되고 있을 뿐이다.

Leventhal의 고착 관념이 되고 있는 이성주의적이며 결정론적인 세계관은, Joseph의 이성에 바탕을 둔 이상주의적 세계관이 현실과 그리고 죽음과의 충돌 과정을 통하여 와해되고 있듯이, Allbee와의 대립을 통하여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Leventhal은 여러 직장을 전전하기도 하고 실직도 하는 오랜 고생 끝에 이제 겨우 Mary라는 여자와 결혼도 하고 남부 맨하탄의 조그마한 상업 잡지를 출판하는 “버어크 비어드 사(Burke-Beard and Company)”에 편집원으로 취직하여 안정된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데, 어느 무더운 여름 밤에 마치 첫 제사(epigraph)속의 “악귀(Ifrid)”처럼 불쑥 나타난 Allbee라는 사나이로부터 당신 때문에 실직하여 이처럼 주정뱅이로 타락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물론, Leventhal은 그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비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해버린다. 그러나 Leventhal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Allbee는 계속하여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그를 괴롭힌다. 불쑥 길을 막아서기도 하고, 직장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파트에까지 나타나서 유태인을 자극하는 언동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처럼 Allbee로부터 시달림을 받게 되어 그의 “냉담함”과 “무관심”으로는 그를 물리칠 수 없게 되자, Leventhal은 그가 터무니 없다고 일축해버렸던 그의 주장을 하나 하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냉철하게 따져봄으로써 그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한다.

Leventhal은 Allbee를 Williston이 베푼 파티에서 알게 되고 자신이 실직 상태에서 고생을 할 때는 그의 도움으로 그가 근무하는 “딜즈 위클리(Dill's Weekly) 출판사의 사장인 Rudiger에게 소개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Allbee는 그 자신이 Williston의 파티에서 유태인을 모독하는 언동을 했기 때문에 Leventhal이 그에 보복하기 위하여 Rudiger에게 소개 되었을 때 성미가 급한 Rudiger에게 도욕적인 욕설로 그를 격분케 하여 결국 그에게 Leventhal을 소개한 Allbee를 실직케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Rudiger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했을 때 Allbee가 말하는 그러한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는가? 그가 아내를 잃고 주정뱅이가 된 것이 그의 실직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 마디로 그가 Rudiger에게서 해고된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Leventhal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제기하여 따져보지만 그가 이르게 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나는 결코 Allbee를 해칠 의도는 없었다. 맹세코 말할 수 있다(I never intended to hurt Allbee. That's my word of honor.)” (V, 109). “Allbee는 훌륭한 일꾼이 아니었다.... 그

는 음주 때문에 해고되었음에 틀림없다([Allbee is] not a good worker... [He] must have been fired for drunkenness)" (V, 41)라는 대답으로 일관된다. 또 그는 "나는 오해를 받고 있다. 왜 내가 그런 문제로 그와 맞서야만 하는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 ('I am mistaken,' ... 'Why do I have to match him [Allbee] in that? Is it necessary?)" (V, 68).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What, are we related?)" (V, 34)하고 부정과 반박을 계속한다. 그러나 그러한 해명과 논리로는 Allbee를 도저히 설득할 수 없게 된다. Leventhal이 부정과 반박이 강해지면 강해질 수록 Allbee는 더욱 집요하게 그의 주위를 맴돌며 비난과 항변을 계속해 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Leventhal은 Allbee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Harkavy와 Williston 등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객관적 의견을 구하고 자신이 Allbee의 실직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려 한다.

Leventhal이 이처럼 의문을 캐고 자신이 Allbee의 실직과 무관함을 밝히려 드는 과정은 Oedipus가 Laius의 죽음의 비밀을 더듬어 가는 과정과 흡사하다. 왜냐하면, Leventhal은 의문을 캐고 무관함을 주장하려면 할수록 책임의 일부를 떠맡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또 그가 그 때까지 갖고 있었던 "피해자"로서의 입장이 "가해자"로 바뀌어져서 Allbee와의 "피해자와 가해자"로서의 관계가 이해하기 힘든 매우 애매모호한 관계로 변해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Leventhal은 그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Harkavy로부터 이 세상사는 너무나 미묘해서 완전한 인간은 있을 수 없으며, 설사 인간이 결점이 있다하더라도 인간은 그 자체로서 고귀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If you don't mind, Asa, there's one thing I have to point out that you haven't learned. We're not children. We're men of the world. It's almost a sin to be so innocent. Get next to yourself, boy, will you?... Things are too subtle for me; I have to knock along on common sense.... All I can say is, '...we all have our faults and are what we are. I have to take myself as I am or push off. I am all I have in this world. And with all my shortcomings my life is precious to me.'..." (V, 83-84)

이와 함께 "Williston은 자네가 *Dill's* 출판사로 가서 소동을 부렸는데 그게 그 친구를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거기에 좀 의도적인 면도 있었다는 암시를 했다(Williston thought you made trouble for this fellow [Allbee] when you went to *Dill's* and you acted up. He kind of hinted that it was intentional.)" (V, 84)는 충격적인 대답을 듣게 된다.

Leventhal은 Harkavy의 인간에 대한 이러한 충격적 깨우침을 받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다. 그로부터 깨우침의 충격을 받기에는 그의 고착관념의 벽이 너무나 두껍고 단단했다. Leventhal은 뱃속에서 끓어오르는 노여움을 느끼며 Harkavy의 대답을 따져 본다. Williston이 나를 잘 알고 있을 터인데 그가 어떻게 고의적으로 더구나 복수라는 이유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 남을 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러나 그러한 Leventhal의 생각은 일방적인 자기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만다. Leventhal이 Allbee가 *Dill's*

Weekly 출판사에서 해고당한 것이 Leventhal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면 솔직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자 Williston도 “글쎄, 그렇게 생각한다.”는 짤막한 대답과 함께 Leventhal의 의도는 분명하지 않지만, 의도에 관계없이 그 결과는 동일하다는 힐책을 하게 된다.

You take it for granted that I think you got Allbee in trouble purposely. I didn't say that. Maybe you aimed to hurt him and maybe you didn't. My opinion is that you didn't. But the effect was the same. You lost him his job. (V, 107)

Leventhal은 Allbee로부터 지긋지긋한 괴롭힘을 계속 당하게 되고 Leventhal의 사고 방식에서 볼 때 불합리하고 부조리스럽기까지한 충격적 사고 방식을 Harkavy와 Williston에게서 경험하게 되자 차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는 특히 Williston의 “자네는 그 (Allbee)를 해칠 의도였을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야”라는 말에 크게 마음이 움직여서 “그 자신이 부지불식간에, 다시 말해서 무의식 중에 Allbee에게 보복하려 했던 것인가? (Had he (Leventhal) unknowingly, that is unconsciously, wanted to get back at Allbee?)” (V, 111) 하는 의심을 품게 된다.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 즉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달아 놓았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되자 그는 어느 정도 비난을 감수해야할지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 자신이 Allbee의 몰락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그의 고착 관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Leventhal의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은 그의 변화를 말하기에는 너무나 미미하다. 그는 이런 일이 있던 얼마 후 어느 일요일 오후 한 카페테리아에서 우연히 Harkavy와 합석을 하게 된다. 그 자리에서는 *The Tigress* 라는 영화에 나오는 Livia라는 한 여배우의 연기가 화제가 되어 있었다. 이 때 저널리스트로서 유쾌계 신문에 글을 쓰고 있는 Schlossberg가 “훌륭한 연기란 바로 인간 그대로의 것이다 (Good action is what is exactly human.) (V, 121)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 이상이 되는 것도 인간 이하가 되는 것도 좋지 못하다. 현미경 하에 놓고 보면 인간이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삶도 아무것도 아니다. 혹은 더럽고 가치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흑과 백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만큼이나 인간의 위대함이나 아름다움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러니 위엄을 가져라” 하고 인간은 그 자체로서 아름다움을 갖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합석했던 사람들이 환성을 지르지만 Leventhal은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I'll tell you. It's bad to be less than human and it's bad to be more than human. What's more than human?... Caesar, if you remember, in the play wanted to be like a god. Can a god have diseases? So this is a sick man's idea of god. Does a statue have wax in its ears? Naturally not. It doesn't sweat, either.... Less than human is the the other side of it.... More than human, can you have any use for life? Less than human, you don't either.... 'You say less than human, more than human. Tell me, please, what is human?' And really we study people so much now that after we look and look at human nature — I write science articles myself — after look at it and weigh it and turn it

over and put it under a microscope, you might say, 'What is all the shouting about? A man is nothing, his life is nothing. Or it is even lousy and cheap.... You shut one eye and look at a thing, and it is one way to you. You shut the other one and it is different. I am as sure about greatness and beauty as you are about black and white. If a human life is a great thing to me, it is a great thing.... Have dignity, you understand me? Choose dignity. Nobody knows enough to turn it down.'" (V, 121-22)

여기에서 Leventhal이 Schlossberg의 말에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Schlossberg가 분석과 논리에 의한 과학적 실재의 탐구방법, 다시 말해서 Cassirer가 말한 "인간 문제에 대한 이성주의적 해결 방법(a rationalistic solution to the problem of man)"¹⁵⁾을 비판하고 대신에 "마음의 지식(the heart's knowledge)." 즉 직관적 지식(intuitive knowledge)에 의하여 파악되는 인간의 실상, 다시 말해서 인간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¹⁶⁾, 이성에 사로잡혀 있는 Leventhal은 Schlossberg의 말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굳게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함과 함께 Allbee가 계속하여 Leventhal이 취하고 있는 "초연함"과 "무관심"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난하고,

You keep your spirit under lock and key. That's the way you're brought up. You make it your business assistant, and it's safe and tame and never leads you toward anything risky. Nothing dangerous and nothing glorious. Nothing ever tempts you to dissolve yourself. (V, 133)

또 반유태적이고 Leventhal이 아픈 곳을 찌르는 언동으로 그에게 충격과 자극을 주게 되자 서서히 그는 "마비에 가까운 무감각 상태"에서 깨어나기 시작한다.

Leventhal은 먼저 혐오스럽게만 보이던 Allbee에게서 "친근감(a feeling of intimate nearness)"을 느끼기 시작한다(V, 144). Allbee의 얼굴과 몸이 이상하게도 가깝게 의식하게 되며, 그의 피부 주름살과 가는 머리 카락은 마치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똑똑히 보이고, 그의 체취를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또한 지금 눈앞에 딱 버티어서 있는 Allbee가 이제 우리는 서로 친구가 아닌가 하고 말을 하는 듯한 그의 표정이 자신의 표정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까지 생각한다.

Leventhal의 이러한 Allbee에 대한 친근감은 "애정과 같은 감정(a kind of affection)으로 끌리

15) Ellen Pifer, *Saul Bellow : Against the Grain*, p. 45에서 재인용.

16) 여기서 Schlossberg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을 이상화하는 것도 그리고 인간을 비하하는 것도 모두가 이성의 논리 작용에 의한 것으로 인간의 실재를 왜곡시킬 뿐이며, 인간의 실재는 개념에 의한 논리적 이해를 넘어서 있는 것으로 이성에 의한 논리적 또는 개념적 이해를 지양하여,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직관의 눈으로 파악할 때 인간 본연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고, 그 때 드러나게 되는 인간은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갖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Schlossberg의 이러한 인간관은 신비주의의 실재관과 동일선상에 있으며, Bellow는 이를 통하여 자신의 신비주의적 인간관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Bellow 소설이 인간을 긍정하고 인간에 믿음을 두고 있는 그의 humanism은 바로 여기에 밑바탕을 두고 있다 하겠다.

어 가게 된다(V, 197). Allbee가 Leventhal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쓰다듬었을 때도 Leventhal은 그가 만지는 대로 내마견 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Leventhal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고 있다. 첫째의 깨달음은 “진실은 단순하다(The truth [is] simple....)”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없고, 만일 진실을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게 되며, “무(nothing)”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소모시켜 본다고 하여도 소용이 없는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진실이란 진술하고 해설을 하지 않아도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것임에 틀림없으며, 또 진실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낮익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진실은 언제나 우리들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The truth must be something we understand at once, without an introduction or explanation, but so common and familiar that we don't always realize it's around us.) (V, 151)는 깨달음을 얻고 있는 것이다.

Leventhal의 “진실”에 대한 이러한 깨달음은 Bellow 인물들의 실재에 대한 인식상의 변화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Leventhal의 진실에 대한 깨달음은 진실이라는 것이 분석이나 논리와 같은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의하여 파악되어 숫자나 기호로 표현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설명”이나 “진술”과 같은 “언어”에 의지하지 않고 단번에 깨우칠 수 있는 “마음” 또는 “직관”에 의하여 파악될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Schlossberg의 인간에 대한 진실과 동일한 선상에 있으며, 또 한편에서 Joseph의 이성의 포기 행위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바로 신비주의의 진리관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Leventhal의 두번째의 깨달음은 “인간적”이라는 것은 많은 약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Human’ [means] accountable in spite of many weaknesses....) (V, 139)는 것이다. 그는 이 깨달음의 결과 그 때까지 그가 취해 왔던 “무관심”과 “냉담”이라는 태도를 청산하고 타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무관심”과 “냉담”은 자기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신을 고립시킴으로써 소외를 남게 하지만, 책임은 불가피하게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여 얽힘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다. 이 두번째의 깨달음은 Joseph이 “선은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랑에 수반되어서 이루어진다(Goodness is achieved not in a vacuum, but in the company of other men, attended by love.)” (DM, 75)는 자각을 하게 됨으로써 하숙방 속에서 인간을 탐구하려는 이성적 노력을 포기하고 사회로 복귀하여 소외를 해소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Leventhal의 이러한 깨달음에 따른 변화는 Allbee의 몰락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받아들여 그를 도우려는 여러 가지 노력, 특히 그를 Hollywood에서 흥행과 텔런트 양성 사업에 관계하고 있는 Shifcart에게 소개장을 써 주고 만나게 하려 했던 그의 노력과 결심에서 잘 드러난다. 또 Allbee가 거리의 여자를 Leventhal 부부의 침대로 끌어들이는 사건에 뒤이어 일어나는 자살 미

수라는 극적인 사건에 의해서는 상징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Allbee의 자살 미수 사건이 Leventhal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은 그 사건이 동반 자살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Allbee의 죽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Leventhal의 죽음을 뜻하고 있고, 더구나 Allbee가 Leventhal의 “더블(a double)”로 나타나고 있어서 Allbee의 죽음은 Leventhal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징적 죽음이 한편에서 그의 “낡은 자아(old self)”의 죽음이라는 또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은 Joseph에게 있어서 그의 “선택의 포기”가 상징적 죽음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그 죽음은 그의 “낡은 자아의 죽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Leventhal의 변화는 그가 Allbee의 자살 미수 사건이 있는 2, 3년후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데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물론, 그는 아직 “인생이란 설새도 없이 날마다 계속되는 투쟁”이라는 의식을 완전히 떨쳐버린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약화되었고, 그전처럼 마음에 걸리지도 않게 되었다. 건강도 좋아졌고, 외모도 변해 있다. 또 보다 좋은 직장을 갖고 있다. 그의 완고한 고집은 없어져버린 것처럼 보이고, 사근사근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자기를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는 완고한 표정, 즉 무관심하고 냉담한 태도는 누그러져버렸다. 피해 의식이나 불안감도 사라져버렸고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다. 더구나 그는 만삭이 된 아내 Mary가 새 생명을 출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마치 그것은 “새로운 Leventhal”의 탄생을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Leventhal의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그가 고착 관념에서 해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전의 그의 모습, 즉 인간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인간 비하자로서의 모습은 그가 갖고 있었던 고착 관념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고착 관념은 하나의 “관념적 구성(an ideal construction)”으로서 Joseph의 경우에도 그러하였듯이 진실을 뒤틀러 놓거나 가로막아버리며, 또 Joseph의 경우에는 Schlossberg의 표현을 빌자면 “인간 이상(more than human)”에만 집착하는 이상주의자가 되게 하였다면, Leventhal의 경우에는 반대로 “인간 이하의(less than human) 세계에만 눈을 돌리도록 하여 인간의 긍정적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는 관념의 노예가 되게 함으로써, 결국 Leventhal을 인간이 힘이 닿지 않는 맹목적이고 위압적인 외부 세계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고착 관념의 희생자가 되게 하고 있다.

Bellow는 *Dangling Man*에 뒤이어 이 *The Victim*에서 다시 한번 Leventhal을 관념의 희생자로 그려냄으로써 인간과 삶에 대한 실재는 분석과 논리라는 이성주의적 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며, 이론이나 관념은 실상을 드러내기 보다는 왜곡시키게 됨을 보여주고 있고, Leventhal은 결국 직관적으로 파악되는, 있는 그대로의 인간 실상이 Scholssberg의 말대로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신비주의적 인간의 실상에 눈을 뜨게 되는 인물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IV. 결 론

Saul Bellow는 그가 Gordon Lloyd Harper와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듯이 매우 조심스럽고 용의주도한 작가였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초기의 두 작품, 즉 *Dangling Man*과 *The Victim*이 비록 “잘 짜여진(well-made)” 소설이기는 하지만, 선배, 대작가들, 특히 *The Victim*의 경우에는 Flaubert의 영향하에서 그들의 소설상의 수법과 세계를 수용, 모방하면서 쓰여졌기 때문에 자신의 세계를 드러낼 수 없었으며, *The Adventures Augie March*에 와서야 이러한 제약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글을 쓸 수 있었고, 또 자신의 세계를 찾아내는 흥분을 느꼈다고 말한 바 있다.¹⁷⁾

Bellow의 초기 소설에 나타나는 이러한 제약은 그의 신비주의 세계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의 초기 소설에서 신비주의의 세계를 절대 존재(Absolute Being)로 나타나는 궁극적 실재(the Ultimate Reality)와의 합일의 체험이나 여러 가지 신비주의 사상 그리고 이미 저리를 통하여 소설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실재 인식에 있어서 이성의 한계를 들추어내고, 또 이성적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Bellow의 표현을 빌자면, “밖으로 드러나는 실재의 모습(the seeming realities of this world)”¹⁸⁾, 즉 현상(appearance)을 넘어선 신비주의적 실재의 세계, 다시 Bellow의 표현을 빈다면, “진실재(the genuine reality)”¹⁹⁾의 세계가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 주어 그의 인식론상의 신비주의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The Adventures of Augie March* 이후 그의 신비주의 세계관을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터전을 예비하고 있다.

부연하여 결론을 맺으면, *Dangling Man*는 이성주의자인 Joseph이 이성에 의지하여 인간의 실재와 삶의 실상을 파악하려했던 욕망이 좌절에 이르게 되는 과정과 좌절의 결과 그가 절대 신봉했던 인간의 실재 인식 능력으로서의 이성을 포기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The Victim*은 이성주의적 결정론에 바탕을 둔 고착화된 인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쳤던 Leventhal이 Allbee와의 불가해한 대립, 충돌로 인하여 인간의 실재와 삶의 실상을 가로 막고 있던 그의 고착 관념이 와해되기 시작함으로써 인간과 삶의 진실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Bellow는 이 두편의 초기 소설에서 신비주의적 실재관과 인식론을 용의주도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그의 소설의 밑바탕이 되고 있으며, *The Adventures of Augie March* 이후의 소설에서는 초기 소설의 여러 가지 제약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발전, 전개하게 된다.

17) Gordon Lloyd Harper, “Saul Bellow,” *Writers at Work : The Paris Review Interview*, selected by Kay Dick, (Penguin Books, 1968), pp. 312-13.

18) Saul Bellow, “The Nobel Lecture,” *The American Scholar* 46 (Summer 1977), p. 321.

19) *Ibid.*, p. 321.

Summary

Mysticism in Saul Bellow's Novels
— With the Emphasis on *Dangling Man* and *The Victim* —

Kyoung-Zoo Yang

A lot of literary critics have touched upon the mysticism in Saul Bellow's novels. Especially, when *Mr. Sammler's Planet* was published John W. Aldridge said, "Mr. Sammler moves from self-preoccupation and secular intellectuality closer and closer to mysticism...." In *Humboldt's Gift*, Bellow himself shows clearly his interest in mysticism through the description of the hero Charles Citrine who follows Rudolf Steiner's anthroposophy and practices his meditation. These facts make us liable to believe that Bellow deals with his mystic vision mainly in his later novels. However, his early novels, *Dangling Man* and *The Victim* as well as his novels, *Seize the Day*, *Henderson the Rain King*, and *Herzog* also deal with this. The point that we should be attentive to when we examine the mystic issues in the early novels is that they are not revealed clearly on the surface. As he said in his interview with Gordon Lloyd Harper, many restraints made him feel the incredible effrontery of announcing himself to the world as writer and artist — in a word, he could not let himself go — when he wrote his early books as he said in his interview with Gordon Lloyd Harper.

Bellow's mystic vision, restrained in his early novels, reveals itself implicitly through his mystic view of reality and mystic epistemology in that genuine reality exists behind the appearances, the seeming realities of this world, and that genuine reality can not be captured through reason but only through intuition. In other words, *Dangling Man* depicts the frustration of the idealistic, rationalist Joseph's in his desire to capture reality through reason, and his later abandonment of reason as a means for grasping it. *The Victim* delineates the hero Leventhal's process of gradual awakening to the reality of man and life through the process of the breaking down of his fixed, rationalistic determinism which obstructs this reality. This mystic view and epistemology forms the foundation of his novels, and his mystic vision is developed on the basis of this view.